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차 상 근 의
관망과 혼수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연고 벼락공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이 세사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정원을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 4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 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 9대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 16대 선거까지 시행됐다. 이후 정당 득표율에 의원배분 방식이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는 지역구 투표 외에 지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해 선진국식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례대표제 운영의 본질에는 접근했지만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도 셀프공천, 방탄공천에 체제부정 후보까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공천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총선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하는 거대 양당이 의원 귀주기, 선거용 기획연합 등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모습은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위성정당은 직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국내에 사실상 처음 생겼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결성했다. 이외는 별도로 당시 청와대 출신인사와 여권 인사들이 열린시민당을 만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 정당은 총선 직후 두 모태정당에 흡수됐다. 당연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민주

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위성정당 금지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귀주기, 기획연합 등으로 국민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정략대로 활용하기 위한 반칙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수치스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것이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수준임을 비정치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skc8472@metroseoul.co.kr

중국이 중국했네



기지 수첩
최 빛 나
(유통&라이프부)

기업이 미디어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다는 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드문 일이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게 됐다'는 짧은 공식입장문을 전달한 채 돌연 간담회를 취소했다.

여전히 취소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앞서 취소된 간담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한국시장에 알리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빨은 말은 지기겠다"는 당당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한한령 등으로 쓴 맛을 맛본 국내 업계는 중국의 달라진 모습에 알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기업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알리가 내달 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입장까지 나오면서 한국 경영에 대한 불신으로 의심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0%를 전면에 내세웠던 알리에 입점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수익창출을 위해 수수료 부과로 입장을 틀어버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다.

가품 이슈도 있다. 장 대표가 가품 문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 많은 가품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중국 이커머스업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TF팀은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 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결 ▲국내 이커머스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외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다른 우려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중국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이나까' 라는 신뢰가 떨어지는 문장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것 같다.

/vitna@

오늘의 운세 3월 15일 (음 2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때로는 아랫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48년생 투자에서 이득발생. 60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72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84년생 남편은 권위적이나 신용이 있다.



37년생 밤하늘의 별이 흐려지면 근심이 생기는 것 같다. 49년생 기대를 한 만큼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6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면 더 피곤. 73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포용을. 85년생 취직으로 양복을 선사 받음.



38년생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몸이 아프면 집안 정리와 청소를. 50년생 돌이 있어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나 외로움보다 크다. 62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74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애정이 있어야. 86년생 동쪽문은 막아보라.



39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51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내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63년생 심신이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천지에 길이 보인다. 87년생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시밭길 천릿길이다.



4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52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옷과 우산이 필수. 64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바로 앞에 있다. 76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없는 속 빈 강정. 88년생 경험 없는 유통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41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이다. 5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라. 65년생 오늘은 양보와 봉사기 미덕이다. 77년생 집 나간 강아지를 애타게 찾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것. 89년생 비밀스러운 만남은 조심.



42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54년생 상하 협업이 이익을 준다. 66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7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90년생 배우자와 불화는 결국 손해 발생.



43년생 나라 밖에서 기분 소식이 온다. 5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욕심을 부리지 마라. 67년생 이웃에게 불륜을 조장하지 마라. 79년생 운동도 하면서 폭식하며 먹는 것을 조심하자. 91년생 공연한 조금쯤으로 초조하지 않도록.



44년생 일은 벌어지고 나서 용서가 무슨 소용인가. 56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68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 않는다. 80년생 동서남북으로 오늘은 거칠 것이 없겠다. 92년생 재물에 공방이나 돈거래는 나쁘다.



45년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나간다. 57년생 자신을 알면 피해 가는 길도 있기에 마르니 걱정할 것 없다. 69년생 판단력이 약하니 계약이 있다면 미루도록. 81년생 창업보다는 월급 생활을. 93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우선.



46년생 자녀방문으로 하루가 행복하다. 5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저중자에. 70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영입이익이 주어지는 날. 82년생 급한 행동으로 골절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94년생 시간의 흐름과 온도에 따라 과일은 익어간다.



47년생 인생의 운기는 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 5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71년생 양다리의 만남에 주의. 83년생 어느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95년생 사람은 인정과 베풀음이 늘 존재.



김상회의四季 봄이 오는 소리, 경칩

경칩 지나 필자는 찬바람에 감기를 이주정도 앓았다. 이때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겨울잠을 깬데 봄을 세운다는 입춘은 바야흐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날이요, 경칩의 침(蟄)이라는 한자는 '들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을 뜻하는 한자이고 경(驚)은 놀라다 또는 놀라게 하다는 뜻이다.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날 때쯤이면 대동강물도 풀리며 개나리 진달래와 같은 봄꽃들은 꽃망울이 완연해진다. 초목은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얼었던 땅도 녹녹해지기 시작하니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에서는 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논이나 산에 물이 고인 곳을 찾아다니며 개구리 또는 도롱뇽의 알을 건져다 먹기도 했는데 어디까지나 먹을 것이 귀했던 옛날의 일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 마시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겨우내 응축되었던 땅속의 미네랄을 어찌 알아보고 받아 마실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 새로운 생명력은 이처럼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그 상위 먹이 사슬인 우리 인간에게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자연에 무엇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받기만 해서 안 될 일이지 않겠는가? 자재경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무릇 한없는 자애를 베풀 것을 얘기한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교하신 자애의 범주가 참으로 한량없다. 절기는 인간만을 위함은 아니리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4 6	7 3
		8	5
8	1		2
4 6			
2			6
			3 9
5		3	2
	9	1	
6 4		7 2	8

3	9 2	8		
	2	1		6
8			1	
7 3	4			
	8		2	
			9	3 4
	6			9
4		7	6	
		6 3	5	8

9 8 8	6 2 2	1 7 9
2 9 7	8 1 9	6 2 8
1 2 6	8 9 7	8 2 9
6 8 2	7 2 9	9 1 9
9 7 2	1 9 8	8 6 2
8 9 1	2 6 8	2 9 7
2 6 9	9 8 1	7 8 2
7 1 9	2 8 9	8 6 6
8 2 8	9 7 6	2 9 1

8 7 9	8 6 9	2 2 1
2 1 9	9 2 8	8 6 7
2 6 8	2 7 1	9 9 8
7 8 2	6 8 9	1 9 2
1 9 2	9 8 2	8 7 6
6 9 8	1 2 7	9 8 2
8 2 1	2 9 6	7 8 9
9 8 6	7 1 8	2 2 9
9 2 7	8 9 2	6 1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